

스마트폰에 양자보안 칩셋 결합... 해킹 원천 차단

SKT-삼성전자, 갤럭시 A 퀀텀 출시

패턴 없는 순수 난수로 예측 불가능한 난수 기반 암호키 생성해 보안 강화 예약판매 돌입, 22일 공식 출시

양자보안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15일부터 21일까지 예약판매를 거쳐 22일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 A 퀀텀'은 ▲6.7인치 대화면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8GB 램 ▲4500mAh 대용량 배터리 ▲25W 초고속 충전 ▲삼성페이 등의 사양을 갖췄다.

SK텔레콤은 '갤럭시 A 퀀텀'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가로 2.5×세로 2.5mm)의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탑재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은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SK텔레콤 자회사 IDQ 연구진들이 SK텔레콤분당사옥에서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 /SK텔레콤

생성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갤럭시 A 퀀텀' 이용자는 양자보안 기반 ▲T아이디 이중 로그인 ▲SK페이 생체인증 보호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을 경험할 수 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이 제공하는 난수를 기반으로 3가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성해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암호키가 필수적이다.

'갤럭시 A 퀀텀'에서 T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1차 아이디 로그인과 2차 퀀텀 OTP 인증'의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아이디 로그인에 양자보안 기반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이 추가되는 식이다.

T아이디 로그인은 11번가, T맵, 웨이브, 플로, T멤버십, 누구 등 SK텔레콤의 주요 28개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T아이디 가입자는 현재 약 1900만명이다.

또 SK페이 앱으로 편의점,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기존에 저장한 생체인증 정보(지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양자보안으로 보호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온라인 가맹점 앱 결제 시에도 양자보안이 적용되도록 개발 중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모바일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에도 양자보안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이니셜'에 각종 개인 증명서를 저장할 때 '퀀텀 지갑'이 자동 생성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이니셜 앱과 발급기관 간 인증 절차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니셜'에서 사용 가능한 증명서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 IDQ와 삼성전자, 국내 강소기업들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A 퀀텀' 출시를 기업 고객(B2B)이 아닌 일반 사용자(B2C)가

생활 속에서 양자보안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기존 양자보안 기술은 지금까지 주로 통신망과 서버에 적용됐었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갤럭시 A 퀀텀'을 예약하고 개통한 모든 가입자는 ▲ADT캡스 도어가드 1개월 이용권 ▲웨이브(베이직 이용권)·플로(올인원 무제한 듣기) 2개월 무료 이용권 ▲무선 이어셋 갤럭시 버즈를 받는다. 22일 이후에 개통해도 ▲ADT캡스 도어가드 1개월 이용권 ▲웨이브·플로 2개월 무료 이용권 ▲갤럭시 버즈 5만원 구매 쿠폰(선착순)·SK페이 3만원·스마일캐시 3만원 중 하나를 증정한다.

스마트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T라이트 삼성카드와 TELLO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청구할인과 캐시백을 합쳐 2년간 약 87만원을 받는다. 또 T안심보상에 가입하면 갤럭시S9플러스 반납 기준으로 최대 33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구매 시 T모아쿠폰 포인트를 10만원 가량 사용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차-정부-지자체, 수소차 보급 맞손

창원엔 수소트럭, 서울엔 수소택시 '시동'

일반인에 수소차 경험 확대 수소경제 저변 확대 박차

현대자동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손잡고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 보급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원시, 서울시 택시사업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5톤 수소최소트럭과 수소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2건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허성무

창원시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 서울시 택시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이번 다자간 협력으로 공공 부문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인들의 수소전기차 경험을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저변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산업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우선 5톤 수소트럭 상용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창원지역 쓰레기 수거용 수소트럭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협력 당사자들과 공유해 내구성 향

상 등 차량 성능개선에 나선다.

창원시에 투입되는 5톤 청소트럭은 지난 2017년 산업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현대차와 부품협력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된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시속 60km 정속 주행으로 599km(현대차 자체 시험·공차 기준)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확대 추진된다. 현대차는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서울시 택시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등과 함께 서울지역 수소택시 시범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양성운 기자 ysw@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산업, 비대면 시대에 새 성장 동력”

박양우 문체부장관, 게임업계 간담회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규제 개선 추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게임 업계와 만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신성장동력인 게임산업 진흥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가진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산업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비대면·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관심 받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로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대회와 부대행사인 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13년만에 신차급 변신... 대형버스 넘어선 프리미엄 차

기아차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

기아차는 13년만에 신차급으로 변신한 고급 대형버스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의 내외장 사진을 최초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은 내외장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차별화 된 고급감을 구현했다. 전면부는 차량 상단의 마커램프와 하단의 헤드램프가 수직구조 형상으로 연결되고 차체와 앞면 유리 사이의 'V'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차체의 웅장함을 강조하면서 그랜버드만의 독특한 디자인 정체성을 담아냈다.

또 실내고를 80mm 높이고, 실내 상단



기아차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 전측면.

좌우폭을 120mm 확대해 국내 대형버스 최고의 공간감을 확보해 운전자 및 탑승객의 실내거주 환경을 개선했다.

동급 최초로 ▲전방 하단 장애물 존재 경고음을 울리는 전방 주차 보조장치 ▲안전사양 작동시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진동을 통해 주의를 주는 스티어

링 랍트 ▲문이 닫힐 때 사람이나 사람이 끼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주출입문 터치 센서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속도감응형 차고 조절장치 등을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SK에너지, 차량관리 플랫폼 개발 착수

차량전문 서비스 업체 6곳 제휴 세차·주차·충전 등 토탈서비스

SK에너지가 고객가치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모빌리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차량관리(카케어) 통합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SK에너지는 차량관리 플랫폼(카케어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고,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세차 및 발렛파킹 등 전문 서비스 업체 6개와 제휴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

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셀세모, 갖차, 루페스, 마지막삼십분, 세차왕, 오토스테이 등 세차 및 발렛파킹 사업을 영위하는 차량관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SK에너지는 제휴 협약사들과 함께 차량관리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우선 손세차, 출장세차, 셀프세차, 발렛파킹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향후 신차중개, 주차, 전기차 충전 등 관련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